

## (가칭)문화예술계 코로나19 대응 표준 방역수칙 제정 제안서

(사)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

### □ 현황 및 문제점

#### 1. 지역 문화예술생태계 붕괴 위험

-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문화예술시설 및 기관의 휴무가 지속되어 문화예술 산업의 작동이 거의 멈춰진 상태임
- 특히 지역 문화예술시설 및 기관과 협력하는 지역 문화예술계는 그 영세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더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음
-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예상에 따른 문화예술생태계 위험의 장기화 우려

#### 2. 문화예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방역 대책의 적용

-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역별·분야별로 탄력적인 생활 방역수칙에 적용되고 있으나, 공공 문화예술시설들의 경우 무조건적인 운영중단 방침이 적용되고 있음
- PC방, 코인노래방, 유흥주점, 대형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들과 비교하여, 대부분 관람객들의 이용정보의 사후 확인이 투명한(티켓사이트 통한 사전 예매, 카드결제 등) 문화예술시설 들이 방역 차원에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운영중단에 내몰리고 있음
- 지역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의 정도가 상이함에도 지자체에서는 문화부의 산하 문화예술시설 운영중단 방침을 차용하여 획일적으로 지역 문화예술시설들을 운영중단 하는 문제 발생하고 있음
- 공공 문화예술시설들의 경우 방역을 위한 자원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운영중단 하는 것이 타당한 대응인지에 대해 문화예술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
- 언택트 문화예술콘텐츠 배급의 경우 자본과 기술 측면에서 영세한 순수예술 장르에게는 실효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우며, 오프라인 공간을 통한 예술 수용의 방식을 포기하기 어려움

#### 3. 시민 문화예술 수용권과 참여권의 침해

- 공공 문화예술시설을 비롯한 많은 문화예술시설들은 전문 예술인의 작품이 발표되는 공간일 뿐 아니라,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참여 욕구가 수용되는 생활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음
- 시민들의 자발적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,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 내 문화예술 교육, 문화예술과 결합한 마을공동체 활동 등이 중단되어 시민의 생활 속 문화예술 수용 및 참여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
- ‘코로나 블루’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안전한 문화예술 서비스가 문화적·감성적 치유제로서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 큼
-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과 연계된 지역 예술인들의 생존권 역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

## □ 정책 제안 내용

### 1. 제안 개요

- 제안 사업명 : (가칭)문화예술계 코로나19 대응 표준 방역수칙 제정
- 제안 주체 : (사)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/ (사)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
- 주요 내용
  - 문화예술 창작 및 수용 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 방역수칙의 제정
  - 문화예술계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 제정 추진
  - 문화부의 지원을 통해 일본 등의 인증을 받아 실효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추진

### 2. 추진 계획

#### 1) (가칭)문화예술계 코로나19 대응 표준 방역수칙 제정 추진

- 문화예술은 창작과 수용 과정에 있어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어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방역수칙의 제정과 적용이 필요함
- 장르별, 지역별, 공간별(실내/옥외/야외) 상황을 고려하고,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의 특성까지 반영한 상황별 방역수칙 안 마련 필요
- 티켓팅-입장-관람-굿즈 구입-퇴장-차량 입출입 등 문화예술 활동 전 과정에 대한 세심한 방역수칙 매뉴얼을 작성함

#### 2) 문화예술계의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 적용 추진

- 전지연과 한광연 등이 제안하고 문화예술계 협단체와 민간 문화예술시설 및 기관

의 참여하는 문화예술계 표준 방역수칙 제정 위한 논의 테이블(TFT) 마련

- 방역활동 위한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공공 문화예술시설에서 선제적 적용 추진

### 3) 전문가 인증 통한 실효적 적용 추진

- 민간 방역 전문가의 자문 및 질본과 논의 통한 인증 추진 등 문화예술계 표준 방역수칙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실효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(문화부 협조)
- 방역상황에 따라 단계적 적용 매뉴얼 마련하여 지역별, 상황별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

## 3. 추진 일정

- 2020. 06. ~ 07. : 문화예술계 의견 수렴 및 문화부 정책 협의
- 2020. 08. : 문화예술계 표준방역 수칙 1차 안 마련 및 선적용
- 2020. 09. : 질본 인증 획득 및 확대 적용

## □ 기대효과 및 향후 대응

### 1. 기대효과

- 국가적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도 안전한 문화예술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문화예술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함
-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생존권을 보장하고 시민들에게는 문화예술 수용권과 참여권을 보장함
- 문화예술계의 자발적인 방역정책 수립을 통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‘post corona, with corona’ 정책 마련의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음

### 2. 향후 대응

-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통해 얻은 중요한 시사점 가운데 하나는 우리 사회의 문화 예술인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확인한 것이며, 문화예술계 코로나19 대응 표준 방역수칙 제정은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에 대한 단기적 대응전략임
-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및 유사 바이러스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재난상황을 대비한 중장기적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함
- 문화예술계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입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문화뉴딜 사업을

설계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며, 이를 위한 문화예술계 논의구조를 (가칭)문화예술계 표준 방역수칙 제정 과정에서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함

- o 기존 예술인 복지정책 관점의 사업들과 함께 예술가치의 확장을 바탕으로 한 예술인 일자리정책 관점의 사업들이 새롭게 추진되어 국내 문화예술생태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